

2025 새해 이렇게 노관규 순천시장

“문화·우주·바이오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순천 열 것”



신청사 건립·육천 정비·이사천~동천 연결 등 차질없이 추진
예산 80% 신속 집행·1220억 상품권 발행 골목상권 활성화

“문화산업, 우주·방산, 바이오산업 3대 경제 축으로 새로운 순천을 열어가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0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월박람회는 1000만명이 방문 해 순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순천시는 그린아일랜드와 오천그린광장 등 그 모델을 제시했고, UN도 아시아도 인정하는 가장 혁신적인 도시재생과 도시 공간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올해 순천시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과 시청 앞 광장, 육천 정비, 이사천~동천 연결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도시와 경쟁하는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세계의 기업들과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올해 말 원도심과 국가정원 습지센터에 웹툰과 애니메이션

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미 세계적 웹툰기업 케나즈와 프랑스 합작기업 오노코리아는 순천으로 법인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다. 그는 또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방산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오는 3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단 조립장이 완공되면 내년엔 발사 예정인 누리호 5호기가 제작되며 방산, 로보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함께 키워나갈 방침이다.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경제 영역도 넓힐 생각이다. 승주읍 일원에 620억원을 투입해 그린 바이오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AI 기반 자율재배 스마트팜을 통해 의약품과 우주·미래식품 등의 원료가 되는 농작물도 키운다.

노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골목상권과 경제 활력을 제강하는 전략들을 시행하기 위해 새해부터 예산의 80%를 신속하게 집행할

생각이다.

1220억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 골목 얼어붙은 골목경제를 녹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2배로 늘린다. 불 꺼진 원도심에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들이 빠르게 뿌리 내리게 해 젊음으로 복적거리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출생수당을 신설하여 1세부터 매월 20만원을 시범 지원하고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줄 계획이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삶이 편안한 도시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북부복지타운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를 확충하고 무료 시내버스, 경로당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통합돌봄을 운영한다.

연향들은 국가정원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 만들 계획으로 올해 8월 첫 삽을 뜬다. 연향들은 호텔과 예술의 전당, 일상을 풍요롭게

할 국제규격의 수영장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최첨단 복지시설까지 들어선다. 이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새해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온전한 연안습지 ‘순천만’은 국가해양정원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보호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기초지자체 최초로 가입할 예정이다. 탐사르 협약과 함께 양대 국제 네트워크에 모두 가입되면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생태도시가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30년을 전후해 경전선이 고속전철화되고 전라선이 고속화되면 주변 여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뀌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도시로의 비상과 함께 인접도시들 간 연대를 강화해 순천이 구심점이 되는 공유·상생 전략을 세워 남해안벨트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며 “미래를 내다보는 상상력으로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순천을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고흥군,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3차 공모사업 5월까지 추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 선정

고흥군과 고흥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월부터 5월까지 고흥군 도시재생 3차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공모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마을에서 하고 싶은 일을 상상하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내 현안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 5월에 진행된 1차 주민공모사업과 12월에 진행된 2차 주민공모사업에서는 각각 3팀이 선정됐으며, 총 6팀이 활발히 활동하며 사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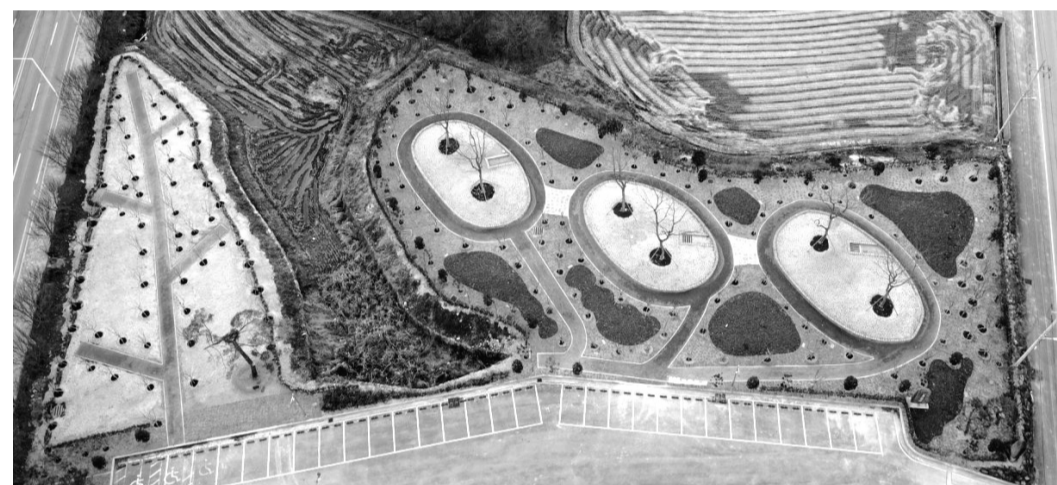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3차 주민공모사업에서는 사업공고를 거쳐 1차 서류심사와 대면 적격심사를 통해 고흥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고흥의 선물) 1개 팀이 선정됐다.

해당 팀은 고흥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집행 기준 등 회계 교육을 이수했으며, 사업실행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실행계획서를 완성해 5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 공모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흥군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구례군 산동면에 조성된 생활밀착형숲.

구례군 산동면 생활밀착형숲 조성 마무리

국비 등 5억원 들여 5000㎡ 규모

구례군 산동면에 지역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될 생활밀착형 숲이 최근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번에 공개된 숲은 구례군의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끝에 산림청의 생활권역 실외정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일관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2억 50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다목적체육관 주변(산동면 원촌리 31번지 일원)에 5000㎡ 규모의 숲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이 숲은 구례 산동면 산수유마을 이미지를 부가

시키기 위해 산수유나무를 군락 식재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연상케 하는 홍단풍, 자엽자두, 홍가시 등 교목과 관목류를 혼용 식재했다.

수목 주변에는 수국, 벚꽃, 페튜니아 등 여름에 꽃을 볼 수 있는 초화류도 심었다. 쉼터 광장 중심에는 팽나무를 심어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화단 구조물을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책길은 숲을 맨발로도 걸을 수 있도록 황톳길로 포장해 휴식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주민 친화 공간을 연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용되지 않던 공간이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정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곡성군 출생아 4년 연속 증가...출산정책 효과

지난해 87명, 전년비 40% 늘어

곡성군의 출생아 수가 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에 힘입어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에 따르면 출생아는 지난 2021년 41명, 2022년 44명, 2023년 62명에 이어 2024년 8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무려 40%(25명)나 증가해 ‘아이 낳고 싶은 군’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곡성군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곡성군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은 영유아 건강보험 지원, 산후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부 건강관리 물품 대여,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이다. 영유아 건강보험 지원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출생 후 5년간 출생아 1인당 월 2만 2000원씩의 보험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 2022년부터는 산후 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임신부용 자동차 안전벨트 등 건강관리 물

품을 최장 7개월간 대여해주고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첫째 출생아에는 1년 300만원(일시불), 둘째는 4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지원 정책의 호응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1인당 최대 50만원씩의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군의 출산지원 정책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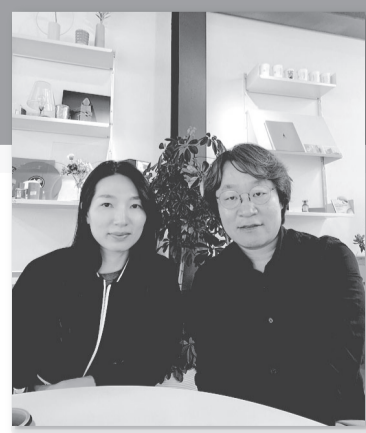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